








# 2022년 책꾸러미 후보도서






## >> 4단계 짚쑥쑥(6~7세 대상)

연번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비고
1	나는 사자	경혜원	(주)비룡소	2021	
	<p>거친 야생에서 새끼를 보호하고 가르치고 마침내 독립시키는 지혜로운 암사자의 이야기와 사랑 속에서 냉정한 강인함을 배우는 아기 사자의 성장이 경이롭게 표현되어 아이와 어른 모두 공감하며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림책이다.</p>				
2	나의 할망	정은진	반달	2020	
	<p>늦가을부터 겨울을 맞이하는 제주의 풍경은 차분하게 내려앉은 기운이 느껴진다. 사계절이 담겨 있는 듯하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한 모습이지만 결코 요란하거나 소란스럽지 않다. 오름을 담은 표지부터 책장을 넘기면 펼쳐지는 섬의 모습은 제주의 풍경이 담뿍 담겨 있다.</p>				
3	내 마음 ㅅㅅㅎ	김지영	사계절	2021	
	<p>자라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아이의 평범한 일상을 따라간다. 갑자기 좋아하던 아이스크림과 장난감이 '시시해'지고, 내 마음을 몰라주면 '속상하'고, 혼자 있으면 '심심하'지만 다 함께 놀고 나면 오히려 '생생하'다! 김지영 작가는 사소한 일에도 변하는 아이의 마음과, 그 소중한 성장을 산뜻한 그림과 글자로 유쾌하게 표현해낸다.</p>				
4	달빛 조각	윤강미	창비	2021	
	<p>달이 사라진 그믐밤에 가족과 숲으로 간 아이가 신비로운 자연 속에서 느끼는 감성을 섬세하게 담았다. 각자 태블릿 피시, 게임기, 휴대 전화 등을 들여다보던 인물들이 밤에 숲길을 걸으면서 자연을 돌아보고 가족애를 회복하는 과정을 따듯한 시선으로 그렸다. 어느 평범한 가족의 특별하고도 소중한 여행을 통해 우리가 잊어버린 아름다운 세계를 환기시키는 작품이다.</p>				
5	동물 농장	도종환	풀과바람	2021	
	<p>서로 길들이고 길드는, 사람과 동물의 교감 과정을 따듯하고 유쾌하게 그려낸 시 그림책이다. 자연을 인간처럼 이해하고, 인간을 자연처럼 이해하는 도종환 시인은 동물과의 특별한 추억을 시로 생생하고 흥미롭게 펼쳐냈다. 한 장 한 장 움직임이 살아 있는 김재홍 화가 특유의 그림은 시에 풍성한 생동감을 더한다.</p>				

## >> 4단계 푸욱푸욱(6~7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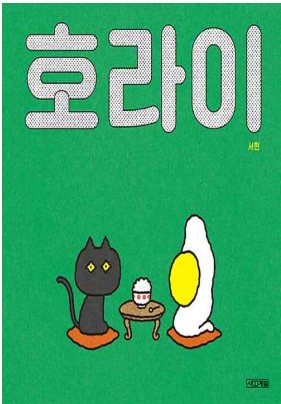

	물속에서	박희진	길벗어린이	2021	
6	<p>문득 찾아오는 무기력함, 나이가 들면서 자꾸만 사라지는 자신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 순간을 바꿔 주는 마법 같은 이야기가 '할머니'와 '수영'이라는 소재를 통해 아주 특별하게 그려진다. 뭐든 "싫다!"고만 이야기하던 할머니가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이 유쾌한 이야기와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그림으로 펼쳐진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않지만, 책을 덮을 때쯤이면 할머니의 속마음이 들리는 듯하다.</p>				
	뭐든지 나라의 가나다	박지윤	(주)보림출판사	2020	
7	<p>하늘에서 글자비가 내리고, 나무에서 아이스크림이 자라고, 체리와 초콜릿이 차차차를 추고, 투명인간이 온갖 희한한 통조림을 파는 낯설고 매혹적인 세계가 펼쳐진다. 신선한 어휘와 재기발랄한 연출로 우리말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고 언어가 주는 즐거움을 한껏 맛보게 해주는 유쾌한 그림책이다.</p>				
	보이니	김은영	비룡소	2020	
8	<p>제24회 황금도깨비상 대상작. 평소 작은 것, 사소한 사물에 관심이 많다는 김은영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작은 사물들 속에 신비로운 상상의 세계를 꽉 채워 넣었다. 현실 세계보다 더 진짜 같은 그 세밀한 상상 속에 독자들은 신선한 재미를 한껏 느낄 수 있다.</p>				
	빨간 장화	한지선	낮은산	2021	
9	<p>아이는 매일 아침 빨간 장화를 챙겨 신고 풀숲을 걷는다. 고구마 밭도 가고, 밤나무 아래도 가고, 갯벌에도 간다. 아침 이슬에 젖어도, 냄새 나는 닭똥을 밟아도, 가끔 뱀을 만나도 씩씩하게 걸을 수 있는 건 빨간 장화를 신었기 때문이다. 가고 싶은 데는 어디든 갈 수 있는 빨간 장화, 힘들 땐 그냥 쉬는 빨간 장화, 빗속을 걷는 걸 제일 좋아하는 빨간 장화, '난 빨간 장화니까!'라고 말하는 당당하고 귀여운 빨간 장화를 만나 보자.</p>				
	어떡하지 고양이	이주희	문학동네	2020	
10	<p>'나만 없어. 고양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돌던 시기, 고양이와 함께 살고 싶다는 막연한 바람으로 "나도 고양이랑 살고 싶다!"를 외치고 다니던 작가. "고양이랑 같이 살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하고 되돌아온 질문에, '그래 뭐가 문제일까? 고양이랑 함께 살기에 괜찮은 환경인데도 선뜻 고양이랑 함께 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게 하나씩 따져 보니, 어느새 그림책 한 권이 만들어졌다.</p>				

## >> 4단계 푸욱푸욱(6~7세 대상)

	연이와 버들도령	백희나	책읽는곰	2022	
11	<p>긴 겨울을 참고 견디어 풍요로운 봄을 만나고, 어두운 동굴을 지나 밝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힘, 죽은 버들 도령을 살려낸 연이의 힘은 연이가 이미 내면에 가지고 있던 마음일 것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할 성장에 대한 이야기이다. 또한 어두운 동굴을 걷고 걸어 밝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작가의 모습이기도 하고, 펜데믹이라는 긴 겨울을 지나는 우리에게 보내는 따스한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하다.</p>				
12	이파라파나무나무	이지은	사계절	2020	
13	진짜 내 소원	이선미	글로연	2020	
14	초록 거북	릴리아	킨더랜드	2021	
15	친구의 전설	이지은	웅진주니어	2021	



## >> 4단계 푸욱푸욱(6~7세 대상)

16	특별한 가을	윤순정	봄별	2021	
	윤순정 작가 역시 버려진 강아지 한 마리에 시선을 두고 오래 고민하고 관찰한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들어 냈다. 《특별한 가을》은 한 아이가 유기견을 입양하면서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이다.				
17	할머니의 용궁여행	권민조	천개의바람	2020	
	아윤이의 할머니는 경상도 바닷가 마을의 해녀이다. 할머니가 물질하러 바다로 나가면 아윤이는 집에서 할머니를 기다린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자 아윤이는 할머니가 걱정되어 바닷가로 간다. 막 물으로 나온 할머니는 바닷속에서 엄청난 일을 겪었다며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18	호라이	서현	사계절출판사	2021	
	서현 작가는 전작 <눈물바다>, <커졌다!>, <간질간질>에서 달걀프라이가 모두 등장하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달걀프라이가 주인공인 그림책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리고 탄생한 달걀프라이의 대모험 <호라이>. '호라이'를 외치며 좌충우돌 어디서나 등장하는 호라이, 시공간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고 우주까지 뻗어가는 호라이는,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은 즐겁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서현 작가 자신을 닮은 것도 같다. 좋아하는 만큼 더 행복해지는 마법 주문을 우리도 외쳐보자. 호라이호라이!				
19	화가 호로록 풀리는 책	신혜영	위즈덤하우스	2021	
	아주 쉽고 재미있게 화를 푸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 주는 그림책이다. 첫 장면부터 화가 잔뜩 난 아이를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화가 난 이유를 묻지 않는다. 우선 아이가 화가 났다는 것을 공감하면서 시작한다. 그러면서 화를 푸는 다양한 방법을 하나씩 알려 준다. 소리를 지르거나 발을 구르는 것, 펄펄 우는 것처럼 즉각적인 행동으로 화를 해소하는 방법뿐 아니라 수를 세거나 자신만의 공간에 숨어 타임아웃을 하는 방법, 꼭 안기거나 소곤소곤 자신의 말을 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위로받는 방법, 좋아하는 음악이나 음식처럼 긍정적인 감정으로 대체하는 방법 등 대부분 쉽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행동들이다.				